

어항, 어촌에 기여하는 '빛' / 어촌의 실태와 어건변화

複合營漁에 대비한 多機能어항 時急

.....
어촌지역에 있어서 어항의 입지와
시설상태는 당해어촌의 어업기반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임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김 정 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어촌의 실태와 문제상황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을 형성하고 있는
각 기능공간, 즉 어촌(생활의 장), 어장(생산
의 장), 어항(생활과 생산의 결절공간)을 통합
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어
촌의 실태 파악도 각 기능공간별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어촌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다음
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어업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현
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2년 이후
어업가구수는 연평균 1.7%씩 감소하고 있으
며, 어업종사자 역시 매년 2.7%씩 감소하고 있

다. 한편 어업종사자중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1980년 전체의 25%였으나 1993년에는 49%
로, 그리고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1976년 38%
에서 1993년에는 47%로 비중이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심화는 노동집약적 어업부
문에서 자본집약적 어업부문으로, 그리고 가족
노동 중심형 연안어업 경영형태로의 생산구조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둘째는 어가소득의 상대적 저위와 부채증가
이다. 1980년 이후 어가소득은 연평균 3.2%
씩 증가해 왔다. 이는 농가의 3.0% 보다는 약
간 높으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3.8%에 비
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어업부문의 상
대적 소득격차는 1990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과 농가소득의 각각 92.4%와 96.4%에 이르
렀으나 1993년에는 각각 81.4%와 85.3%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어가의 평균부채액은 1983년 이후 연평균 7.1%씩 증가해오므로써 어가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어가부채의 증가요인을 보면 종래에는 어업생산과 관련한 생산성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근년에 이르러서는 어가가계비 및 겸업 생산과 관련된 부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는 어촌생활환경의 낙후이다. 어촌의 생활환경은 근년에 이르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사업, 도서개발촉진사업, 농어촌 마을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 전반적인 어촌의 생활여건은 도시 혹은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인식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어업생산 및 어장이용 실태와 문제점

다음으로 어촌의 생산의 장인 어장의 실태는 첫째로 연근해어업 생산이 장기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생산요소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

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원양어업과 해면양식어업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어업생산 총량의 정체현상을 빚게 하고 있다. 1973년 이후 1993년까지 우리나라 어업생산은 연간 1.96%씩 증가해 왔으나 그동안 어업생산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오히려 동기간에 각각 0.17%, 0.56%씩 감소함으로써 총어업생산에 대한 비중이 1973년 63%에서 1993년에는 45.7%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연근해어업의 총생산에 대한 점유율 감소와 생산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어선세력이나 어업종사자 비중의 변동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업부문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매우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급격한 어촌 노동력 감소 현상과 관련해 볼 때 신속한 어업구조조정이 중요한 수산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양식어장의 생산력의 저하와 어장확대의 한계이다. 해양오염의 심화와 동일어장의 장기간 이용에 따른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어장생산력의 저하, 그리고 간척매립에 의한 기존어장 및 개발잠재어장의 잠식 등으로 인한 어장확대의 한계, 즉 신규어장 개발 및 기존어장의 대체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셋째는 바다오염의 심화와 바다자정능력 쇠퇴이다. 육지로부터 유입된 생활하수, 공장폐수, 각종 수산양식 부산물, 빈번한 기름유출, 대단위 간척·매립사업 등에 의한 바다의 오염과 바다 자정능력의 심각한 쇠퇴는 해양생물의 생산성 및 품질을 급속히 저하시키고 있으며, 기존어장의 노후화 현상을 촉진함으로써 연안바다의 고도이용을 위한 「기르는 어업」의 집중 육성전략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어항의 실태와 문제점

어항은 어촌의 생산공간인 어장과 생활공간인 부락을 연결시켜주는 결정지임과 동시에 지역어민의 재산인 어선을 보호하고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이다. 따라서 어촌지역에 있어서 어항의 입지와 시설상태는 당해 어촌의 어업기반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임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기능

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우리나라의 어항간 거리는 일본에 비하여 거의 6배에 이르고 있으며, 어항이 입지하고 있더라도 완공률이 매우 저조하여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어항개발은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부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투자의 부족은 새로운 어항 수축을 제한하고, 또한 진행중인 어항공사를 지체시킴으로써 태풍 혹은 폭풍으로 인한 만성적 어선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어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특산품 개발이나 산지직출하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오늘날의 어업경영형태는 대부분의 어촌에서 양식 어업부문이 추가되는 복합경영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 보다 다양한 어항 기능시설이 요청되고 있으나 기존 어항의 기능시설 보유상태는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 여건변화 전망

수산물 공급능력의 쇠퇴와

수입 증대

최근 국민소득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수산물을 원료로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손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세계 각국의 수입장벽이 완화되고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수출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같은 수산물 수요의 증가현상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상당히 탄력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외국산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반면, 수산물 공급은 1980년대 이후 연근해어업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에 놓여 있으며, 정체의 원인이 자원량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중단기간에 있어서 생산량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원양어업의 여건도 국제수산물기구의 조업규제와 연안어업자원 보유국가의 폐쇄적 자원관리 정책이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증대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수산물의 수요증대와 공급의 정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만간 수산물의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격차는 해가 거듭될수록 확대될 것이다. 초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와 가공수산물 소비 확대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특징적인 식품 소비형태의 변화는 외식산업의 급격한 확산과 육류 및 수산물 소비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곡물소비의 감소로 규정지을 수 있다. 특히 외식산업의 확대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여가의 향유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는 하나 단독세대의 증가와 여성의 취업 확대 등 과도 커다란 연관성을 갖는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건강식품에 대한 욕구증대가 구체적 소비행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타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리고 수산물 소비행태는 종래의 원형동결 혹은 원형 선어 중심의 소비행태에서 즉석요리가 가능한 처리동결 형태나 활어, 그리고 고차가공품 소비행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간편식품, 편리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행태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수산물의 소비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화의 진전과 지역어업 개발의 중요성 증대

금년 중반부터 실시된 지방자치화는 종래 중앙정부의 획일적 개발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해역별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적 해양특성적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수산부문 변화는 현재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 수산자원기반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자원보유상태와 성장잠재력을 고려해서 그 지역발전 전략을 세우게 되고 어업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적합한

품목의 특화현상이 뚜렷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상응한 기술 및 지도수요가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내어업의 지역간 유효경쟁의 촉발은 개방화시대에 있어서의 경쟁력 배양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연안해역의 어업적 이용·개발에 대한 조정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어업경영 형태로 전환

어촌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종사자의 분포는 젊은 층의 비율이 노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장구형의 노동구조형태로, 어업을 이어나갈 영어 계층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어업의 후계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지 않는 한 50대 후반과 60대의 연령층이 어업을 은퇴할 향후 5~10후의 어업은 후계인력 부재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어촌내에 확고한 어업소득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업어민

에 비하여 겸업어민 혹은 어업피용자의 이촌률은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겸업 및 피용자 가구의 지속적 감소는 어업전문경영자에 의한 경영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의 해양관광상품 개발 확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정보산업으로 점차 진입해감에 따른 실질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감소로 국민레저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관광활동의 양상도 종래의「본다」는 소극적인 면에서「즐기고 행한다」는 적극적인 활동형태로 변화되어 해양관광자원에 기초한 레저·스포츠형 관광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정책은 육지관광자원 개발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져있는 해양관광자원 개발 중심으로 개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해양관광 수요와 결합된 어촌의 관광상품 개발은 중요한 어업의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